

보도	2023. 8. 29.(화) 조간	배포	2023. 8. 28.(월)
----	--------------------	----	-----------------

담당부서	저축은행감독국 건전경영팀	책임자	팀 장	이희성	(02-3145-6773)
		담당자	조사역	양현덕	(02-3145-6794)

##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 본 자료는 '23.6월말 현재 영업 중인 79개 저축은행의 잠정치로, 향후 저축은행별 결산과정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음

### I. 재무 현황 : 전년말 대비 총자산 감소, 자기자본 증가

□ '23.6월말 총자산은 134.4조원으로 전년말(138.6조원) 대비 △4.2조원 (↓3.1%) 감소

○ 총대출은 109.3조원으로 전년말(115.0조원) 대비 △5.7조원(↓4.9%) 감소

- 기업대출(65.1조원)은 법인대출 위주로 △5.4조원(↓7.6%) 감소  
가계대출(39.9조원)은 신용대출 위주로 △0.3조원(↓0.8%) 감소

□ 자기자본은 15.0조원으로 전년말(14.5조원) 대비 +0.5조원(↑3.6%) 증가

○ 이는 순손실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자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주요 재무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2.6월	'22년말(A)	'23.6월(B)	증감(B-A)	증감률
총자산	1,333,695	1,385,933	1,343,612	△42,321	△3.1
(대출금)	1,144,621	1,149,745	1,093,185	△56,560	△4.9
부채	1,199,076	1,241,298	1,193,789	△47,509	△3.8
(예수부채)	1,164,664	1,202,348	1,148,870	△53,478	△4.4
자기자본	134,619	144,636	149,822	5,186	3.6

## II. 손익 현황 :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 '2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62억원으로 전년 동기(8,956억원) 대비 △9,918억원 감소

○ 이는 예대금리차 축소\* 등으로 이자이익이 감소(△5,221억원)한 가운데,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6,292억원)한 데 주로 기인

\* 예대금리차 추이(%) : ('22년 上) 6.19 → ('22년 下) 6.01 → ('23년 上) 4.72

○ 다만, 2분기 적자 규모(△434억원)는 1분기(△528억원) 대비 소폭 감소

###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FY22	FY23		증감(B-A)	증감률
		'22.1~6월(A)	'23.1~6월(B)		
영업이익(A=a+b-c-d)	20,542	11,565	△1,285	△12,850	적자전환
이자이익(a)	67,368	32,978	27,757	△5,221	△15.8
이자수익	96,545	45,044	54,331	9,287	20.6
이자비용	29,177	12,066	26,574	14,508	120.2
비이자이익(b)	△4,453	△79	△1,695	△1,616	손실확대
비용(c)	16,894	8,313	8,035	△278	△3.3
대손충당금전입액(d)	25,478	13,020	19,312	6,292	48.3
영업외이익 등(B)	△4,586	△2,609	323	2,932	흑자전환
당기순이익(A+B)	15,957	8,956	△962	△9,918	적자전환

## III. 자산건전성 현황 :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

□ '23.6월말 총여신 연체율은 5.33%로 전년말(3.41%) 대비 +1.92%p 상승 하였으나, 2분기 상승폭(+0.27%p)은 1분기(+1.65%p) 대비 크게 둔화\*

\* 이는 신규연체 감소('23.1분기 : 3.9조원 → 2분기 : 3.5조원(△0.4조원)) 및 적극적인 상·매각 등에 따른 연체정리 확대('23.1분기 : 2.0조원 → 2분기 : 3.3조원(+1.3조원)) 등에 주로 기인

○ 기업대출 연체율은 5.76%로 전년말(2.83%) 대비 +2.93%p 상승 하였으나, 2분기 상승폭(+0.69%p)은 1분기(+2.24%p) 대비 크게 둔화

○ 가계대출 연체율은 5.12%로 전년말(4.74%) 대비 +0.38%p 상승 하였으나, 2분기 중 하락세로 전환\*

\*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 ('22말) 4.74 → ('23.3말) 5.58 → ('23.6말) 5.12

## 대출 종류별 연체율 현황

(단위 : %, %p)

구 분		'22.6월말	'22년말 (A)	'23년		전년말 대비(C-A)	증감	
				3월말 (B)	6월말 (C)		전분기말 대비	
							1분기 (B-A)	2분기 (C-B)
총여신		2.60	3.41	5.06	5.33	1.92	1.65	0.27
	기업대출	1.93	2.83	5.07	5.76	2.93	2.24	0.69
	(법인)	2.00	2.58	5.02	5.45	2.87	2.44	0.43
	(개인사업자)	1.78	3.31	5.17	6.35	3.04	1.86	1.18
가계대출		4.04	4.74	5.58	5.12	0.38	0.84	△0.46
	(주택담보대출)	1.39	1.85	2.33	2.60	0.75	0.48	0.27
	(가계신용대출)	4.49	5.14	6.12	5.65	0.51	0.98	△0.47

- '23.6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61%로 전년말(4.08%) 대비 +1.53%p 상승하였으나, 2분기 상승폭(+0.49%p)은 1분기(+1.04%p) 대비 둔화
-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고정이하여신 증가 규모가 이를 상회함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비율 (Coverage Ratio)이 95.4%로 전년말 대비 하락(△17.9%p)하였으나,
    - 요적립액 대비 충당금적립률은 규제비율(100%)을 여전히 상회하는 수준

##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충당금적립률 현황

(단위 : %, %p)

구 분	'22.6말	'22년말 (A)	'23년		증감		
			3월말 (B)	6월말 (C)	전년말 대비 (C-A)	전분기말대비	
						1분기 (B-A)	2분기 (C-B)
고정이하여신비율	3.34	4.08	5.12	5.61	1.53	1.04	0.49
충당금적립률	114.2	113.3	112.3	112.2	△1.1	△1.0	△0.1
Coverage Ratio	126.0	113.3	98.8	95.4	△17.9	△14.5	△3.4

## IV. 자본적정성 현황 : BIS비율 개선

- '23.6월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15%로 전년말(13.15%) 대비 상승(+1.00%p)하였으며,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 자산 1조원 이상 : 8%, 자산 1조원 미만 : 7%

- 위험가중자산은 대출 감소 등으로 전년말 대비 감소( $\Delta 3.8$ 조원,  $\downarrow 3.2\%$ )한 반면, 자기자본은 증자 등으로 증가( $+0.6$ 조원,  $\uparrow 4.1\%$ )한데 기인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22.6월말	'22년말(A)	'23.6월말(B)	증감(B-A)	증감률
BIS기준 자기자본(A)	147,465	155,072	<b>161,480</b>	6,408	4.1
위험가중자산(B)	1,145,163	1,179,145	<b>1,141,560</b>	$\Delta 37,585$	$\Delta 3.2$
BIS비율(A/B)	12.88	13.15	<b>14.15</b>	1.00	

## V. 평가 및 감독방향

- '23년 상반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은 이자이익 감소 및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적자로 전환한 가운데, 연체율도 전년말 대비 상승
  - 다만, 2분기 중 손실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연체율도 신규 연체 규모 감소와 함께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으로 2분기 들어 상승폭이 크게 둔화
  - 또한, BIS비율은 자본 확충 등으로 전년말 대비 상승하는 가운데, 규제비율(7~8%)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
- 금년 하반기에는 現 경제 여건 감안시 저축은행의 영업 환경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 저축은행이 부실채권 매각 확대, 자체 채무 재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 저축은행의 위기상황분석 실시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충당금 추가 적립 및 자본확충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계획